

국내 음악분야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조 순 이**

본 논문은 자유시장 논리를 앞세운 자본주의사회가 인류의 기술과 문명에 이바지한 측면이 적지 않지만, 다른 한편 그 경쟁체제로 인해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된 맹점을 해소하고자 새롭게 부각된 기부문화(寄附文化)에 대해 관심을 갖고자 한다. 특히 종래의 재화 및 유형적 선물의 기부형식과는 달리 재능기부와 관련된 새로운 교육기부 움직임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기부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그 결과 전체 717개 교육기부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105개, 이 중 음악 관련한 프로그램은 총 33개만이 운영되었음을 파악하여, 향후 문화예술 교육기부를 위한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 주제어 : 기부문화, 교육기부, 사회공헌 활동, 문화예술 교육기부

차 례

I. 서 론

II. 본 론

1.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와 교육기부
2. 오늘날 문화예술 교육기부의 현황
3.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 프로그램

III. 결 론

* 본 논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문화예술 교육기부 컨설팅 운영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춘천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부교수

I. 서 론

자본주의가 표방하는 노동 및 소득이 기회의 상실로 인해 점점 불균형을 이뤄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빈곤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는 고사하고 교육기회의 형평성마저 무너지고 있는 형편이다. 소위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정서(“가난은 대물림 된다!”)는 사회를 불신하고 미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만든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관심을 집중해야 할 정책은 교육의 기회평등에 있다고 본다.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기회의 제공은 더 이상 일정 교육체제 아래서 실현되기 어렵다. 지역적·지역적으로 떨쳐버릴 수 없는 문화 및 교육의 편차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새로운 형태의 ‘나눔’ 및 ‘사회적 공유’가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종래의 기부형태와는 달리 오늘날 새롭게 부상하는 교육기부는 단순히 교육구조의 부족한 현실을 채우는 입장을 넘어서 사회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진적 사고에 기초한다.

교육기부와 관련한 오늘날의 움직임은 더 이상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란 말처럼 일부 구성원에게만 국한된 기부나 기여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즉 시티즌 오블리주 개념으로 재정의(再定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곳곳에서 살아가는 잠재적 능력을 갖고 기회가 닿으면 기꺼이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것이 꼭 필요한 이웃과 서로 이어주는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에 대한 세밀한 연구 및 조직적인 기획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기부가 일어난 배경과 정부 주도로 운영되었던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717개)을 근거로 문화예술 분야 중에서도 음악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우리나라의 기부문화 및 교육기부

기부활동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자선기관을 통해서 혹은 직접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사전적 의미로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원조할 목적으로 재화나 물품 등의 유형적 희사(喜捨)를 함의한다. 이 같은 행위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금품모집제한법이나 공직자선거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자원봉사’와 같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사회 혹은 국제사회를 위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도 새로운 기부형태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나눔’이란 보다 더 포괄적인 용어를 통해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면서 일방향적 제공의 형태를 넘어서 쌍방향적 상호부조의 형태로서, 이른바 공유(共有) 개념이 기부문화에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개인적인 참여가 돋보이는 기부문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 및 IT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적인 편리함을 누리면서 자의식이 보다 강화되고 한층 성숙해짐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개인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첫 번째 이유로는 정보전달 및 사회적 참여를 고무시키는 전달매체(예, 스마트폰 및 인터넷)의 발달을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예, 가수 김장훈)과 종교인들(예, 故 이태석 신부)의 사회참여 및 봉사에 대한 실시간 보도 및 홍보활동은 대중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기부방식의 다양한 발전도 기부문화 확산에 한몫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ARS 방식 및 신용카드 포인트 혹은 마트에서 영수증 기부 나아가 휴대폰 및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모금방식과 같이 다양하고 간편한 방식의 모금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경제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둘째, 지속적인 기부를 위해 전문화된 단체 및 조직이 등장했다.

오늘날에는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기

부참여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설립된 <아름다운 재단>이 기부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부문화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한국사회의 기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실재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아름다운 재단>의 “1% 나눔”, “유산 나눔” 등 다양한 기부참여 프로그램 발굴을 촉진시켰다. 이 같은 접근방식은 곧바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복지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민들의 참나적인 동정심에 호소하는 종전의 기부방식에서 벗어나 훨씬 더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기부를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끔 이끌었다.

셋째, 정부주도의 기부문화 확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2010년 9월 교육과학기술장국실천연합회에서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기부나눔운동(KOREKA) 활성화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도로 과학기술·문화예술·인문분야에서 교육기부에 대한 컨설팅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해오던 개인 및 몇몇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및 재능기부 등을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게끔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교육기부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취지에 많은 기업·대학·연구단체·국민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공동으로 현재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교육기부 매칭 서비스를 실시간 운영하고 있다.¹⁾

1) 교육기부의 대한 의미

교육기부의 개념은 일종의 “재능기부”에서 유래한다. 물론 그 동안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인적·물적 자원의 기부형태(예, 품앗이, 계, 두레, 향규 등)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부’의 형태와 좀더 닮은 재능기부는 지난

- 1) ‘교육기부 매칭 서비스’의 목적 : 기업 및 대학 등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homo socialis)로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동료 및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자연스럽게 체휼하고 터득할 수 있다(<http://교육기부.kr/donation.do?todo=main> 교육기부 소개글 참조).

2002년 영국 변호사들이 “*pro bono publico*”(공익을 위하여, 줄여서 *pro bono*)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공익활동에 공공연하게 사용하면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교육기부의 개념은 “아웃리치(Outreach)”란 개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웃리치란 비영리·종교·시민단체들이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중이나 소외된 계층에게 다가가는 모든 활동들을 통칭하는데, 다만 이런 활동들은 공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없이 나누어 주는 행위여야 한다. 그리하여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나누어 주되, 수요자(수혜자)와 공급자(제공자) 사이의 만남 및 관계를 최대한 적절히 조정하여 보다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체의 진행과정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웃리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기부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따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육기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하는 인적 자원의 교육기부 형태, 둘째, 공공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건물이나 시설 혹은 기자재 등을 기부하는 물적 자원의 교육기부 형태 그리고 셋째, 콘텐츠의 사용권한을 제공하는 교육기부 형태 등으로 나뉜다. 따라서 종래의 전통적인 교육기부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장학금 지원을 넘어서 교원대상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대상 진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새롭고 다채로운 교육콘텐츠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부가 시도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교육기부의 현황

1) 기부 사례와 관련된 선행 연구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느덧 기업 또는 단체의 문화예술 분야 사회공헌 및 교육기부에 대한 다양한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²⁾, 이에 대한 선행연구는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전문자료와 논문자료 그리고 방송자료를 열거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2) 사회공헌 및 기부 활동과 관련된 국외 사례는 조사 결과 그 분량이 방대하여 별도의 연구를 통해 정리해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제외하였음.

<표 1> 문화예술분야 사회공헌 및 기부 관련 자료

	제목	저자	발행처	발행일
전문 자료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상표충성도에 미치는 탐색적 연구	유호종, 이민순	한국항공경영학회	2009
	문화기업의 비밀: 켈처노믹스 시대의 문화마 케팅	남정숙 외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해외 메세나 연구보고서 번역 시리즈1 - 왜 기업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해외 메세나 연구보고서 번역 시리즈2 - 영 국사례에서 배우는 예술을 통한 창조경영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문화, 예술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교육 프로 그램에 관한 연구	최광웅, 염경식, 윤호창	한국콘텐츠학회	2007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파트너십	임학순	북코리아	2007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이 지닌 사회 적 의미 - 영국 A&B (Arts & Business)의 활동사례	이숙경	아르코	2006
논문 자료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부 정책사업과 민간기 업 사회공헌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김자현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0
	기업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가능 성 연구 : ‘독서통신교육’을 중심으로	홍석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9
	기업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감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감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정희정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2008
	외국의 기업 아트마케팅의 현황과 특징 :영국 과 미국을 중심으로	김별다비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7
방송 자료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MBC 프라임	2010-02-23	
	예술, 세상을 바꾸다 : 제 2부 “시장으로 간 예술”	MBC 프라임	2007-10-30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자료에서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에 관한 국내외 사례를 연구한 자료들이 대부분이었고, 논문자료에서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기업의 사업과 정부의 사업 간의 연계 방안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감성교육 그리고 방송자료에서는 기업가들의 문화예술교육기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문화예술 분야 기부 사례의 유형별 구분

박소연(2011)의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재능기부의 유형을 크게 기부주체와 기부내용에 따른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첫째, 기부주체에 따라서는 전문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예비 전문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지역사회 기반 비전문 문화예술인의 재능 나눔 등의 기부로 분류할 수 있고, 둘째, 기부내용에 따라서는 문화예술경영 컨설팅 재능기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재능기부,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재능기부 중개사업 및 민간 영역의 문화예술을 통한 재능기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참고, 박소연 2011).

3) 정부부처의 재능기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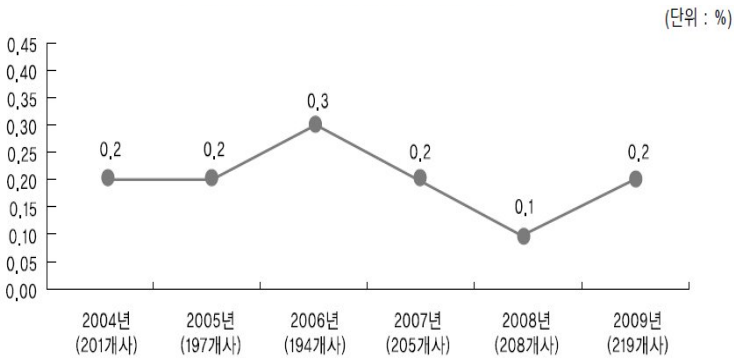
현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나눔문화의 확산을 추진하고, 2009년에 ‘공정한 사회’를 국정운영방향으로 설정하여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나눔문화와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을 중점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관련기관에서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정책적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다. 여기에는 재능기부 정책,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프로보노 연계 컨설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능기부 정책, 문화재청의 문화재 지킴이 재능기부 등이 있고, 그밖에도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정책,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 프로보노 정책, 보건복지부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정책,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오케스트라 사업 등이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능기부 정책으로는 서울시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정책, 경기도의 재능기부 정책,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악기기부은행 등이 있다.

4) 기업 및 기업재단의 사회공헌활동 실태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9년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과 기업재단의 사회공헌 실태를 조사하였다.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2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총 223개 기업(응답률 : 44.6%)으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추이와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현황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09년 사회공헌실태조사에 응답한 220여개 기업은 2009년 사회공헌활동에 총 2조 6,517억 5,6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2008년(2조 1,601억 4,100만원) 대비 약 22.8% 증가한 것이며, 2007년(1조 9,556억 4,200만

원)에 비해서는 약 35.6%나 증가된 것이다. 1개사별 평균 사회공헌비용은 120억 5,300만원으로 2008년 103억 3,600만원에 비해 약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9년도 사회공헌활동 지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로, 2008년의 0.1%에 비해 약 0.1%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의 유례없는 세계경제 불황에 의해 기업의 매출액이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비 지출을 오히려 증액한 결과라고 하겠다.



[그림 1]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 추이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77쪽에서 재인용)

이처럼 국내기업들의 사회공헌비용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관심과 노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08년 말 세계(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기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것으로 비쳐진다.

5) 주요 기업 및 기업재단의 음악분야 사회공헌 사례

상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 실태조사 대상 500대 기업의 모든 프로그램을 검토해 본 결과 문화예술분야 중에서도 특히 음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는 저조한 편이었다. 그래도 대략 10개의 기업 및 기업재단에서 아래의 <표 2>에서와 같이 눈에 띄는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최소 4,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초등학생부터 일반인 및 전문 문화예술인을 포함하고 있고, 특정한 서양악기의 실기 레슨 및 체험활동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한 콩쿠르와 축제 등의 후원 형태를 통하여 향후 클래식 전문가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두었거나 전문 공연예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 공헌 실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음악교육 콘텐츠와 관련한 내용은 유일하게 한화그룹의 “한화예술 더하기” 프로그램에서 다뤄지고 있었다.

<표 2> 국내 기업 및 기업 재단의 음악 분야 기부 사례

기업 및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특징
LG생활건강 : 뮤직 아카데미		200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 대상 : 음악적 재능이 있으나 교육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초, 중, 고등학생 -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룻, 클라리넷 1:1 레슨, 오케스트라 수업 - 향후 오케스트라 연주회, 음악 콩쿠르 개최 등 국내의 대표적인 청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육성하고자 함
메리츠화재(주) : 린덴바움 페스티벌 후원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국내 젊은 음악도 -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수석연주자와 함께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삼성전자(주) : 삼성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카데미		2009년 5월부터 현재까지	- 대상 : 지역의 음악에 재능이 있는 고등학생 - 이론 및 실기 레슨 / 문화체험활동 /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연주회 기회 제공
신한은행(주) : 신한음악상 개최		200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 대상 : 제 2회 신한음악상부터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교생 - 당 행의 임직원(1만3,000명)들이 자발적으로 소액을 기부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개미 메세나’ 방식임. - 수상자에게는 1인당 4년간 16억 원의 장학금을 수여함은 물론, 줄리아드 프리스쿨 마스터클래스 제공, 무대기회 제공 등 다양한 특전이 부여됨.
한화그룹	한화예술 더하기	2009년 1월 ~2011년 12월(3년)	- 대상 : 소외계층 아동 - 음악교육 : 악보읽기, 음정·박자 익히기, 다양한 악기 체험 - 공연 관람, 문화예술 통합캠프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 기획행사 : 유명예술인과의 만남 및 문화예술현장 방문
	예술의 전당 ‘교향악 축제’	2000년부터 현재까지	- 대상 : 일반인, 오지분교 및 저소득층 아동 - 약 20개 교향악단과 국내 음악계에 중추적인 연주자와 협연자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신예 연주자가 참여하는 음악축제 진행

기업 및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특징
현대건설 (주)	함께해요! 나눔예술 Happy Tomorrow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 대상 : 경제적, 문화적 소외계층 - 동아일보, 세종문화회관과 협력하여 20개 국내 최고의 예술단이 펼치는 200여회의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 관람 기회 제공(오페라,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국악, 합창, 합주, 무용 등)
	힐스테이트 갤러리 대중문화 예술 공연	2009년 (연중실시)	- 대상 : 다양한 계층의 대상 -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그너협회 음악회’ 등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연 75회 실시, 관람 기회 제공
재단법인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 사회복지/ 음악사업 부문		1997년부터 현재까지	- 금호아트홀 및 문호아트홀 아트갤러리시설 운영 - 해외오케스트라 초청사업(뉴욕필, 베를린필) - 기획콘서트사업 - 무료항공권 지원(아트홀 초청연주자 및 금호음악인상 수상자) - 금호아트홀 및 문호아트홀 아트갤러리시설 운영-영재음반제작 지원 - 문화예술행사협찬 지원 - 악기은행 운영 - 금호음악인/스승상 지원 - 금호매너스스쿨 지원
재단법인 LG연암문화재단 : LG아트센터 운영		2000년부터 현재까지	- 대상 : 문화 예술인, 일반인, 학생 등 - 클래식, 뮤지컬, 오페라, 현대무용 등의 전통적인 공연에서부터 팝, 재즈, 멀티미디어 이벤트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수용할 수 있는 종합예술 공간 제공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 지원사업공모		2003년부터 현재까지	- 대상 :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 - 공모를 통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정기 연례 사업으로 운영 - 재단이사진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미술전시, 음악공연, 각종 축제와 학술행사 등 매년 15건 정도를 선정함
재단법인 연강재단 : 문예진흥사업		1993년부터 현재까지	- 뮤지컬, 연극,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자와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여 지원 - 공연,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장르의 젊은 예술가들과 신선한 작품을 발굴, 육성

6) 보도매체를 통해 살펴본 음악분야 기부 관련 기사 사례

관련기사를 통해 소개된 문화예술 사회공헌 관련 사례들은 특히 소외계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아래의 <표 3>은 음악분야 기부와 관련된 기사만(2009. 10. 28~

2011. 8. 23)을 정리한 것이다.

<표 3> 음악분야 기부와 관련된 기사 목록

제목	신문/ 방송사	일자	대상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에 빠진 아이, “음악이 즐거워요.”	조선일보	2011-08-23	학생
“오페라 체험…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동아일보	2011-08-11	학생
발 구르고 손뼉 치고… 오케스트라 수업 아닌 무용시간 보는 듯	조선일보	2011-08-10	학생
[광주/전남] “소외계층 국악영재에게 희망을”	동아일보	2011-06-10	학생
[광주/전남] 화순 산간오지서 피어난 음악교실의 꿈	동아일보	2011-03-25	학생
[세상사는 이야기] ‘엘 시스템’과 예술인의 재능기부	매일경제	2011-03-18	학생
[대전/충남]시골학교에 ‘오케스트라의 선율’ 흐른다.	동아일보	2011-03-08	학생
저소득층 학생 주축 오케스트라 65개 창단 “음악 연주하며 인성 가꿔요.”	서울신문	2011-03-08	학생
세상을 바꾼 음악의 힘!	세계일보	2011-03-02	학생
평창고 ‘대일밴드’ 다섯 멤버 희망의 노래… 강원도 산골 말썽쟁이들 ‘드림하이’	국민일보	2011-02-16	학생
걸돌던 영등포공고 학생들, 난타 자선 공연 “짜늘한 시선 대신 박수 받으니 짜릿하죠.”	조선일보	2011-01-08	학생
[현대카드]슈퍼스타의 ‘슈퍼콘서트’	주간한국	2010-11-03	전체
[한화] 문화 소외계층·청소년에 희망을	주간한국	2010-11-03	학생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2]예술은 평생의 동반자 : 스웨덴	조선일보	2010-05-11	일반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1] 불우청소년, 음악으로 거듭나다 : 베네수엘라	조선일보	2010-05-10	학생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음악을 통해 자긍심과 상호 존중을 배워”	조선일보	2010-05-10	학생
[예술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같이 모여 연주하면서 남을 이해하게 됐어요.”	조선일보	2010-05-10	학생

3.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 프로그램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성교육과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교육기부 네트워크팀이 주관하고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기부 담당부서와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었다(참조, www.teachforkorea.go.kr).

상기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정식으로 “교육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교원연수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그램으로 양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 프로그램은 창의적 체험활동, 나의 꿈을 찾아보는 흥미진진한 진로교육 체험을 통해 배우는 과학기술, 생각의 폭을 넓히는 인문사회,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는 문화예술/체육교육, 기타 - 녹색성장교육, 보건교육 및 교과학습 지원영역에서 총 717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약 4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 교육기부 주체로는 기업, 대학, 대학생동아리, 공공기관, 출연(연), 단체·협회 등 619개 기관(동아리 포함)이 동참하였다.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음악분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총 105개의 문화예술 관련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제시되었고, 이 중에서 음악 프로그램은 아래의 <표 4>에서처럼 총 33개로 집계되었다.

<표 4> 2012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부문 프로그램

연번	콘텐츠	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대상	운영 횟수	운영 날짜	운영 장소
1	교원 연수	전남국악교육 연구회	국악의 이해와 살기 지도법(초급)	국악교육 이해, 살기지도법	유아, 초등교원	총1회	'12.8.20~8.24	광주교육대학교 음악관
2	"	해성여자 중학교	통기타의 음악 선율 속으로	통기타 연주법, 연주회	초·중등 교원	총1회	'12.7~8월중 15일간	해성여자 음악실
3	학생 창체진로교육	삼익악기	삼익악기 직업 현장 체험	공장견학, 악기제조과정 이해, 통기타 악기체험	중·고등학생	총1회	'12.7월중	삼익악기 충북음성공장
4	"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Happy Virus School	영어 뮤지컬	중학생	총5회	'12.7.23~7.28	원의중학교
5	"	삼성화재	장애학생 음악캠프 “뽕꼬 아 뽕꼬”	현악기 금관/목관 상악, 피아노 분야 심사 후 레슨 및 연주회 기회 부여	중·고등학생	총1회	'12.8~8.10	삼성화재 유영연수원
6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스쿨 특활교실 A-체험학습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뮤지컬, 음악회 등 관람 기회 제공	초등학생	총1회	'12.7월중	참가학교 시설 및 지역사회 시설(공연장)

연번	콘텐츠	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대상	운영 횟수	운영 날짜	운영 장소
7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온드림스쿨 특활교실 B-대학생 교육제능기부 캠프	초등학생과 대학(원)생의 멘토-멘티 관계 음악 프로그램	초등학생	총12회	'127~8월중	2012년도 온드림스쿨 참가학교 시설
8	"	BS부산은행 조은극장	뮤지컬 교실	뮤지컬 체험활동	중,고등학생	총3회	'127.28/8.4/8 18	BS부산은행조은 극장
9	"	YAMAHA	관악반 교실	1학생 1악기 악기연주교육	초안여중 기악반 학생	총2회	'127~8월중	초안여자중학교 음악실
10	"	강원대학교	대학생 특기적성 멘토링	음악(피아노, 성악, 작곡) 지도	중학생 춘천지역 저소득층 학생	총1회	'127월중	강원대학교 및 멘티소속학교
11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피아노 교실	노래, 이론, 피아노실기	매직초등학교 학생	총8회	'127.30~8.27	매직초등학교 교실 및 강당
12	"	동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청소년 음악교실(니주 YO)	신청접수-오디션-선발, 양악교육(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국악교육(대금, 장구), 노래(성악) 지도	지역 초,중,고등 학생	총1회	'127~8월중	동신대 평생교육원 실습실, 강의실
13	"	제주대학교	악기별 음악교육(오렌지 스쿨)	학교에서 원하는 악기 전문강사 배치	제주 지역 초,중학생	총1회	'127~8월중	제주특별자치도 각 학교 배정공간
14	"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교육기부(신성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캠프, 악기연주교육	신성중 오케스트라 단원	총20회	'127.23~8.17	신성중 음악실
15	"	초당대학교	예술교육기부(광주청 소년 교향악단)	오케스트라 연습 및 파트별 연습	초,중학생	총 6회	'127~8월중	광주 청소년 교향악단 연습실
16	"	한경대학교	품목들이 체험 및 장애학생 돌봄이 활동	전통악기 실습지도	중,고등학생	총 5회	'127.16~8.17	한경대학교 및 해당학교
17	"	한국교원 대학교	늘 푸른 학교	리듬놀이, 핸드벨	농촌지역 가남초등학교 학생	총1회	2012.7.30~8.3	가남초등학교
18	"	경북대학교 통기타동아리	노래와 통기타 교실	노래와 통기타	대구지역 중학생	총5회	'127월 넷째주 ~ 8월말	교내 청룡관세미나실 또는 해당학교 교실
19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리 - 'Happenings'	Happenings와 함께하는 Mini Rock Festival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 팀별 5명씩	지역 내(영도구, 중구) 고등학생	총1회	'127.20~7. 22/8.3~8.5/8 17~8.19/매주 금토 일요일 1300~1500	한국해양대학교 Happenings 동아리방(K 101호)
20	"	아리랑문경 문화원	즐기는 문경새재 아리랑	새재 아리랑소리, 사물 연주	초등 4~6학년	총20회	'127~8월중	아리랑문경문화 원
21	"	충주종합 사회복지관	여름방학 학생 오케스트라 캠프	오케스트라 집중 연습 지도	초등학생	총5회	'127~8월중	동량초등학교
22	"	해군 제2함대 군악대	가야 프로그램	악기연주교육지원(가야, 플룻, 클라리넷)	원정초등학교 생	총8회	'127~8월중	원정초등학교
23	"	난계국악기 체험전수관	해오름국악관현악단 하계 국악교실	국악기연주 체험, 견학 및 친교 연주체험	고등학생	총1회	'127.16~19	난계국악기체험 전수관

연번	콘텐츠	기관명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대상	운영 횟수	운영 날짜	운영 장소
24	"	문화예술교육 협회	해피뮤지컬스쿨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작품 관람, 뮤지컬 워크숍 및 발표, 클래식 악기 지도	취약계층 초·중·고등 학생	총1회	'128월중	금천구청 내 보건실 금천문화원
25	"	미래를여는 문화회	신인004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운영	악기연주지도	도서지역 초·중학생	총 16회	'127~8월중	암해초등학교
26	"	보성북소리 예술단	우리가락 공연 및 체험교육	공연 관람(사물놀이, 모듬북과 대고, 민요), 우리가락 악기 체험	유아, 초·중·고등 학생	총2회	'127~8월중	북소리에술단공 연장
27	"	사물놀이 한울림교육원	얼쭈절쭈 당너궁, 우리가락 종을씨고	사물놀이 교육	유아, 중·고등학생	총1회	'127.30~8.31	사물놀이 한울림 교육원
28	"	새한장학회	실용음악부 운영	밴드부지원 강사지원악기대여 및 공연장소 지원	소외지역 중학생	총8회	'127~8월중	새한장학회
29	"	우도농악 보존회	우도농악을 찾아서	영광우도농악 이해 및 기능 습득	초등학생	총1회	'128.20~21	우도농악전수관
30	"	한국소리문화 의 전당	우리는 문화예술 탐험대 V	초등음악예술 - 서양음악, 우리음악 이야기	초등학생	총4회	'128.4~8.30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31	"	한국음악치료 학회	인사이팅 뮤직테라피	음악극, 가사창작, 타악즉흥연주	서울 경기지역 초·중학생	총2회	'1278월중	협의 중
32	"	호남연정국악 연수원	우리 국악 익히기	판소기와 해금의 이해 및 기능	초·중학생	총5회	'127.23~8.31	화순초등학교
33	"	YD 뮤지컬 컴퍼니	(주요)과 함께 하는 연극 뮤지컬 "희망클래스"	뮤지컬 기초 연기 수업 및 공연 관람	고등학생	총8회	'127~8월중	YD 뮤지컬 컴퍼니 연습실/ 창조 콘서트홀

1) 기부대상 분석

상기 <표 4>를 토대로 기부대상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5>와 같이 유아 및 교원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 수는 매우 저조하였고,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이 대다수였다. 물론 프로그램의 특성상 특정한 연령을 구분하는 경우 외에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에, 대상 선정이 유동적이다. 하지만 교육의 효과 및 재창출 면에서 좀더 다양한 대상의 교육기부가 아쉽다.

<표 5> 2012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 부문 수혜 대상별 분석표(복수)

대상별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교원	초등교원	중등교원
프로그램수	1	16	17	10	1	2	3
백분율(%)	3	48	52	30	3	6	9

2) 국악과 서양음악의 비율 분석

상기 <표 4>를 토대로 프로그램 내용상 국악과 서양음악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6>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악은 30%, 양악은 76%의 비중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의 프로그램에 국악과 서양음악을 동시에 구성한 경우도 있다. 수혜 대상의 요청에 의해서 프로그램 영역이 선정되었다기보다는 기부자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영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짐작하는 대목이다.

<표 6> 2012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 부문 장르별 분석표(복수)

분야별	국악	양악
프로그램수	10	25
백분율(%)	30	76

3) 음악의 장르별 분석

2012 여름방학 교육기부 전체 717개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105개로 서, 이는 전체 비율의 15%에 해당하고, 이 중에서 음악 프로그램이 총 33개(국악 10 + 양악 25)라는 숫자는 사실상 전체 프로그램 비율로 따졌을 때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국악에서는 9개 부문, 양악에서는 18개 부문을 다뤘다는 사실은 기부자가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채로운 장르 및 내용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2012 여름방학 교육기부 음악 부문 장르별 분석표(복수)

분야별	상세 내용		프로그램수	백분율(%)
국악	1	국악의 이해	1	3
	2	실기지도	3	9
	3	사물	3	9
	4	소리	2	6
	5	판소리	1	3
	6	해금	1	3
	7	모듬북	1	3
	8	대금	1	3
	9	장구	1	3
	소계		14	42

분야별	상세 내용		프로그램수	백분율(%)
양악	1	통기타	5	15
	2	베이스 기타	2	6
	3	드럼	2	6
	4	악기제조과정 견학	1	3
	5	뮤지컬	5	15
	6	현악기	5	15
	7	관악기	9	27
	8	성악	5	15
	9	보컬	1	3
	10	피아노	4	12
	11	작곡	1	3
	12	이론	1	3
	13	음악회 관람	1	3
	14	음악프로그램	1	3
	15	리듬놀이	1	3
	16	음악논술(국악, 양악)	1	3
	17	음악극	1	3
	18	타악 즉흥 연주	1	3
	소계		47	141

Ⅲ. 결 론

현대사회에서 ‘교육기부’라는 말은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이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와 명목 아래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학교교육에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사회·교육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부 문화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출발을 했었지만, 점차 문화예술 분야로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행 국내 음악분야 교육기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둘째, 하지만 문화예술 교육기부 운영이 시작단계에 놓여있다.

셋째, 문화예술 교육기부를 위한 음악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례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넷째,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교류 및 만남이 보다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그 중재수단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요청된다. 이를 위해 나름대로 기부 가능한 자원을 보유한 기업과 조직적인 능력을 갖춘 정부 간의 연계 및 협력이 유기적이고 유연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음악분야 프로그램을 촉구하자면, 이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능력을 지닌 기업 및 기업 단체의 활발한 기부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몽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정책토론회 (2010).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기부나눔운동(KOREKA) 활성화 방안」
- 김별다비 (2007). 외국의 기업 아트마케팅의 현황과 특징 :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논문.
- 김자현 (2010). 문화예술교육 분야 정부 정책사업과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의 연계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석사논문.
- 남정숙 외 (2008). 「문화기업의 비밀: 컬처노믹스 시대의 문화마케팅」. 한국메세나 협의회.
- 박소현 (2011). 「문화예술분야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유호중, 이민순 (2009).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동이 기업이미지와 상표충성도에 미치는 탐색적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 이숙경 (2006). 「예술과 비즈니스의 이상적 결합이 지닌 사회적 의미 - 영국 A&B (Arts & Business)의 활동사례」. 아르코.
- 임학순 (2007). 「문화예술교육사업과 파트너십」. 북코리아.
- 전경련 (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전경련 (2010). 「2009 사회공헌백서」.
- 정희정 (2008). 기업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활용과 감성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 감성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석사논문.

- 최광웅, 엄경식, 윤호창 (2007). 『문화, 예술을 활용한 한국 기업의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해외 메세나 연구보고서 번역 시리즈1 - 왜 기업은 예술을 필요로 하는가』.
- 한국메세나협의회 (2008). 『해외 메세나 연구보고서 번역 시리즈2 - 영국사례에서 배우는 예술을 통한 창조경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문화예술인의 재능기부 사례 및 활성화 방향』.
- 홍석 (2009). 기업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가능성 연구 : ‘독서통신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석사논문.

MBC 프라임 (2010.02.23.).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다.

MBC 프라임 (2007.10.20.). 예술, 세상을 바꾸다 : 제2부 “시장으로 간 예술”.

ABSTRACT

A Investigation into the Actual Condition of Music Part Educational Donation in Korea

Cho, Sun-i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opportunities have to be given to members of society and teenagers for newly expand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adjacent various culture to make that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chosen freely for actual bountiful life. This cannot be achieved just from school education. Because (at least) about domain of cultural arts, it seems that school education has huge educational deviation depend on geographical or regional condition. In this situation, advanced thinking that study on cultural arts part educational donation should be accepted as social responsibility.

This study had investigated and analyzed into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al arts part educational donation, e.g. 717 programmes by enterprises in Korea, expressly focusing on the educational purpose of music part. If I may suggest, based on the result from this, first, more methodical plan making is needed for activating educational donation. Second, political approach based on fellowship and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is needed. Lastly, diversification of educational donating main agent is needed with consulting of appropriate experts.

key words: culture of donation, educational enlightenment, educational donation,
cultural arts part educational donation

투고일: 9월 30일, 심사(수정): 10월 22일(11월 9일), 게재 확정일: 11월 15일